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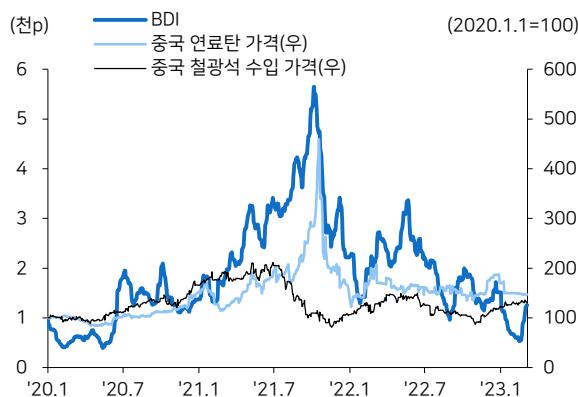
2023. 3. 10 (금)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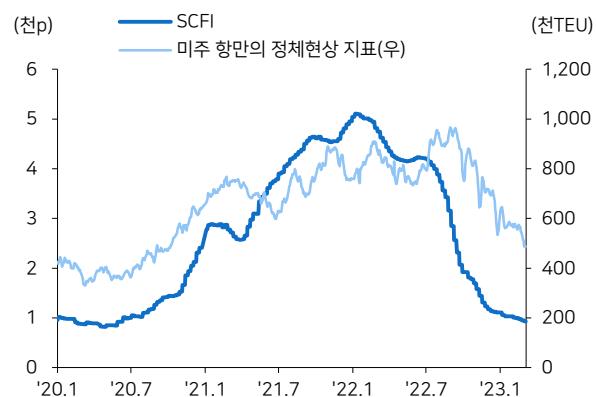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79.0p(+5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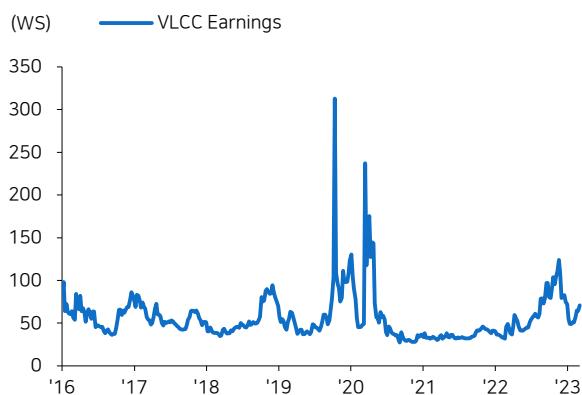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31.1p(-15.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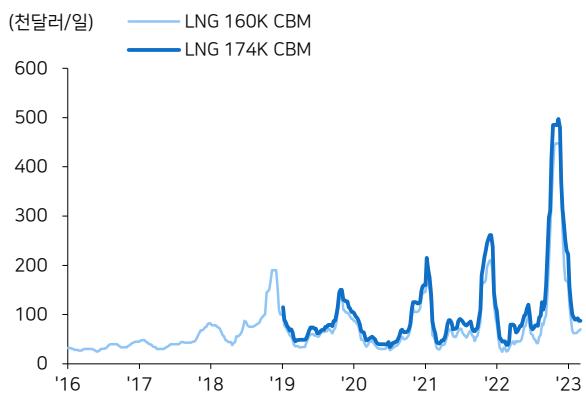


VLCC Spot Rate

70.7p(+6.5p WoW)



LNG Spot 운임

70.5천달러(+2.5천달러 WoW)
87.5천달러(+0.0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4.3p(+0.4p WoW)
151.1p(+1.2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696.0달러(-2.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Russia's Yamal LNG upped exports in 2022 with 90% of cargoes shipped to Europe

High North Logistics에 따르면 Yamal LNG 프로젝트 생산량 90%는 유럽으로 수출했다고 보도됨. 281척의 수송 건 중 251척이 유럽으로 향했다고 알려짐. 2021년 263척 중 219척이 향한 과거보다 높은 수준임. 프랑스·벨기에·스페인이 주요 수입국으로 알려짐. 아시아는 2022년 33척, 2021년 44척 수준으로 언급됨. 아시아 수입국은 중국·대만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신규 수입국으로 등장했다고 알려짐. Sabetta 항구에서부터 아시아까지 북해항로를 이용해 수송되며 항로길이가 길어졌다고 언급됨. (Tradewinds)

Container shipping 'price war' spreads to Asia-Europe trades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운임이 40% 하락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도됨. FBX에 따르면 아시아→북유럽 노선은 3월 8일 기준 1,500FEU(1FEU=2TEU) 수준임. 1월 3,420달러/FEU, 2월 2,608달러/FEU에서 크게 하락했다고 알려짐.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일부 선사들은 과잉선복을 줄이지 않아 가격 전쟁 국면에 이르렀다고 알려짐. 태평양횡단 노선 운임은 이미 2019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언급됨. (Tradewinds)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 자사주 또 매입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부사장이 1월에 이어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보도됨. 평균 취득 단가는 15만 9,700원이며 취득 총액은 1억 5,790만원으로 알려짐. 일부사장은 지난 1월에도 1억 6,200만원어치 1000주를 매입한 바 있다고 알려짐. (딜사이트)

TotalEnergies plots drilling at potentially giant prospect offshore Papua New Guinea after major Covid delays

TotalEnergies가 4년간 연기된 파푸아뉴기니 유전을 2024년 시추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심해 Mailu-1 wildcat에는 약 500백만 배럴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됨. (Upstream)

아시아나항공, 중국 노선 운항횟수 9배 늘린다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17개 중국 노선을 주 89회로 확대 운항한다고 보도됨. 아시아나 항공이 기존 9개 중국 노선을 주 10회 운항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9배 가량 확대된다고 알려짐. 하계 운항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노선들을 주 14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임. 기준 5% 수준이었던 중국 노선 운항 회복률을 50%까지 끌어올려 중국 리오프닝에 대응해나갈 계획임. (조선Biz)

미국 항공사, 조종사 모시기 경쟁…임금 40% 인상 걸었다

미국 항공사들이 조종사 부족 현상에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내걸었다고 보도됨. 델타항공은 사내 조종사 1.5만명을 대표하는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와 협상해 앞으로 4년간 급여를 34% 인상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아메리칸항공은 평균 급여 21% 인상에 이어 4년 후에는 총 급여를 40%까지 높인다고 언급됨.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등 미국 항공사는 2023년 조종사 8,000여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으로 언급됨. 일부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2027년까지 이어진다고 예상했다고 언급됨. (아시아경제)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